

ISSUE BRIEF

여시재 - 협력연구기관 공동 기획

트럼프 제조업 부활 공약 분석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제조업 강국 일본**

2017. 04. 16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트럼프의 등장을 일본 기업들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려 고용을 늘리겠다는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중국과 멕시코 제품을 주 타깃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많은 전자소재 부품회사는 중국에서, 자동차 주요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대미수출품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이 정말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다면,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도요타의 국내생산비율은 약 45%인데,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면, 국내의 공동화는 더욱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시장과 비교하면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은 일본 제조업에게 덜 매력적이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일본의 제조업은 바야흐로 시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トランプ大統領誕生で日本の製造業は試練を迎える』The Page, 2016.11.16.)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이 일본의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 역풍이라는 것은 과장된 기우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 자동차공업회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에서 약 385만대(2015년)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편 오토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신차가 657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즉 이미 일본 자동차 업체는 신차 판매대수의 60%를 미국에서 현지생산하고 있어서, 현지생산을 늘리는 데 따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大前研一, 「トランプの貿易政策、日本車の関税引上げはほとんど意味なし」, 『NEWSポストセブン』, 2016.12.9.)

또한 도요타는 미국 내에 9개 생산거점을 갖고 있으며, 닛산은 5개, 혼다는 7개 생산거점을 갖고 있어서, 미국내 고용 창출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이 점도 트럼프의 미국을 설득하는 데 일본 기업의 강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미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원래 자급자족의 국가이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자국시장에서 자기완결적으로 생산 유통 소비가 가능하다고 믿는 국가여서 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御堀直嗣, 「日本車に逆風」は本当? トランプ政権誕生が自動車業界に及ぼす影響, 『マイナビニュース』, 2017.1.2. <http://news.mynavi.jp/articles/2017/01/02/Trump/003.html>)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전비와 현지 종업원의 교육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신흥국으로의 생산지 이전이 총비용에서 볼 때 적자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특히 중서부)이 제조업 공장입지로서 매력을 되찾고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佐藤知一・田尻正滋「いまさら聞けない『工場立地』入門」)

그 이유로 일본의 업체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다. 중국에서 가파르게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할 때 과제로 남



는 것은 제조기술자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시작되어, 일본과 같은 높은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난점으로 꼽힌다.(三島一孝, 「トランプ政権誕生で製造業が考えるべきポイントは『米国生産』」)

한편 트럼프의 등장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운영체제를 수정할 기회로 보는 입장이 있다. 특히 중소 제조업자들의 인식이 그렇다. 일본의 중소 제조업자들이 운영하는 정보교환 사이트 <Production Compass>에는 ‘트럼프의 관심이 국내로 향해 있는 지금, 일본이 경제적인 자주독립을 통해 내수 중심의 풍요로운 국가로 변모시킬 기회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논설이 실렸다. 글로벌리제이션 속에서 ‘패배를 강요당해 왔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일본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TPP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誕生と日本の今後」 <https://p-compass.com/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誕生と日本の今後/>)

나아가 방위산업 등 일부 제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정책이 미일안보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여 방위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차와 방위 기기 제조에서 선두를 달리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식투자 전문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President Online, 「このトランプ銘柄は買いだ！ 2017年『注目業界&推奨銘柄』マネー」 2017.2.16., <http://president.jp/articles/-/21344?page=3>)

트럼프의 등장을 성찰의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있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의 고용 감소 경향에 맞물려 평균 급여도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임금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일본은 미국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서서 야마모토 류조(山本隆三) 일본 국제환경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 이상으로 일본에서 제조업 부활과 이를 위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제조업을 통한 경제성장의 실현과 에너지비용의 삭감을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山本隆三, 「ゲイツが「トランプはJFKのようになる」と判断した理由」, <http://wedge.ismedia.jp/articles/-/8612>)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수상의 외교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데라시마 지쓰로(寺島実郎) 일본종합연구소 회장은 ‘미일관계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다. 그는 현재 일본이 ‘신자유주의와 리플레이션(통화재팽창) 경제학의 복합 골절’ 상태에 있다고 보고, 트럼프의 등장을 일본이 금융주도경제에서 실물중심경제로의 중심이동을 위한 호기로 파악한다. 그는 종래 일본의 성장이 약탈적인 머니게임이 아니라, 이웃국가들과의 양호한 관계를 전제로 성립했던 제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일본이 평화주의를 관철하는 기술 보유국으로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미국에 대한 과잉 기대와 의존을 탈피하여 주체적으로 동아시아



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토대 구축에 나서라고 역설한다.(寺島実郎, 「<トランプの米国> 日本総合研究所会長・寺島実郎さんに聞く」, 『東京新聞』, 2016.11.18.)



[부연자료]

「트럼프大統領誕生で日本の製造業は試練を迎える」The Page, 2016.11.16.

大前研一, 「トランプの貿易政策、日本車の関税引上げはほとんど意味なし」, 『NEWSポストセブン』, 2016.12.9.

御堀直嗣, 「日本車に逆風」は本当? トランプ政権誕生が自動車業界に及ぼす影響」, 『マイナビニュース』, 2017.1.2.

<http://news.mynavi.jp/articles/2017/01/02/Trump/003.html>

佐藤知一・田尻正滋「いまさら聞けない『工場立地』入門」

三島一孝, 「トランプ政権誕生で製造業が考えるべきポイントは『米国生産』」

「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誕生と日本の今後」 <https://p-compass.com/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誕生と日本の今後/>

President Online, 「このトランプ銘柄は買いだ! 2017年『注目業界&推奨銘柄』マネー」 2017.2.16., <http://president.jp/articles/-/21344?page=3>

山本隆三, 「ゲイツが「トランプはJFKのようになる」と判断した理由」, <http://wedge.ismedia.jp/articles/-/8612>

寺島実郎, 「<トランプの米国> 日本総合研究所会長・寺島実郎さんに聞く」, 『東京新聞』, 2016.11.18.